

“기왕의 통설만 반복재생산하는 게 능사인가”

김욱동교수의 「탈춤의 미학」을 비판한 임재해교수의 서평을 비판한다

이훈상

동아대 교수·한국사

김욱동 교수(서강대 영문과)의 「탈춤의 미학」(현암사)에 대한 임재해 교수(안동대 민속학과)의 본지서평(153호)이 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역사학자 이훈상 교수(동아대)의 이 글은 그 서평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자, 새로운 시각의 또다른 서평이다. 이교수는 우선 기존 탈춤 연구가 극중 현실을 손쉽게 역사 현실로 치환하는 ‘맥락주의’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탈춤미학 자체를 다룬 저자의 접근태도를 옹호한다. 탈춤은 민중의 문화가 아니라 조선왕조체제의 중재 엘리트집단, 즉 향리들이 주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교수는 「탈춤의 미학」에서 흡족지 못한 연구사 정리, 현장론의 무시 등의 오류도 지적하고 있다.

탈춤의 연구와 관련하여 김욱동 교수의 저서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과문을 던져준 사실은, 이 방면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크게 다행스런 일이다. 탈춤 연구는 민속 문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대 한국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그 의미를 굳혀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임재해 교수의 지지 유무와는 관계없이, 서평자인 임재해 교수의 학문 성과 역시 그 근거가 되어왔다. 그리고 학문적 계보를 거슬러올라 가 보면 조동일 교수의 성과도 당연히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임재해 교수는 민중사의 현실과 민중적 삶을 토대로 탈춤이 형성되었다고 믿고 이러한 믿음 위에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김욱동 교수의 이해와 크게 상치될 수밖에 없다. 탈춤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탈춤의 주제 집단과 이를 배태한 제의, 더 나아가 당대의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성격을 쉽게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술한 연구자들의 접근 방식이나 결론은 역사학자들이 상정한 도식을 탈춤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버리기 어렵다. 그러나 민속학자들이 전제로 삼아온 역사학자들의 가설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맥락주의’ 거부한 김교수 논점 돋보

이와 더불어 탈춤 연구에 있어 보다 큰 문제는 극중 현실을 너무 손쉽게 역사 현실로 치환하는 소박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시대의 사상이나 또는 문학을 단순히 역사현실의 반영으로 치환하여 연구하는 이른바 맥락주의의 접근 방법이 큰 오류를 수반한다는 것은 최근 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논의이며, 이 지적은 역사학뿐 아니라 인문사회학 전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주의이며, 이 점은 북한이나 남한의 연구자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당위성과도 같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탈춤과 관련한 임재해 교수의 민중사의 현실과 민중적 삶에 대한 이해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현재의 페러다임을 통하여 과거의 원전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극중 현실을 역사 현실로 손쉽게 치환하는 작업을 거부한



김욱동 교수의 접근 태도는 매우 돋보인다고 생각한다.

김욱동 교수가 탈춤의 미학을 다루면서 단어의 의미를 그 지칭하는 사물이나 대상보다는 언어 안에서의 사용 방식에 주목한 것은 적절한 접근 방식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언어놀이의 유형을 탐색하는 데 많은 관심을 할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맥락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역사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기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역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를 기초로 성급한 결론을 도출한 데 대한 거부감으로 믿어진다.

임재해 교수가 서평에서 외국 이론의 수용과 적용 문제를 크게 거론한 사실도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한국 문화의 보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외국 이론의 수용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탈춤이 인류 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작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대 이후 한국의 학문은 크게 볼 때 서양 지적 조류의 세계 위에서 성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역사학 연구자는 근대 역사학의 원조로 인식되는 랑케나 비코의 후에 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각 개인의 지지 유무와는 관계없이 마르크스주의의 페러다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어느 학자도 동서양의 거대한 지성의 교류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임재해 교수나 조동일 교수가 전제로 삼은 조선 후기 사회상은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기초한 가설이다. 그러나 이 가설도 서양사의

발전 단계를 보편사로 보아 이를 한 전제로 삼는 데 불과하다. 요컨대 민중과 민족을 강조하는 한국 역사의 내재적 발전론조차 한국사의 특성을 도출하기보다는 서양사의 발전을 보편사로 규정하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강인한 자민족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복합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의 긴장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학계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많은 외국 이론이나 가설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욱동 교수의 저서에는 그 이론이나 가설의 기초가 된 서양의 문화 현상을 보다 보편적이거나 우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내세우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저자의 설명은 역사 현실이 아닌 反 歷史 공간에서 제기되는 미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저서와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탈춤이 연행되는 反 歷史 공간에 놓여져야 한다. 탈춤은 역사 현실이 의도적으로 허용된 反 역사 공간에서 연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을 역사 현실이 적도입되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믿어진다. 역사와 망각이라는 양자의 대비에서 망각이 우세한 장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는 이를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이를 구별한 섬세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저자의 독특한 견해가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소 의미를 찾기 어려웠던 영역이 김욱동 교수에 의하여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다. 저자의 풍요로운 해석은 인상적이다.

“탈춤, 민중문화 아닌 ‘邑治중심’ 발전”

다만 김욱동 교수가 거론한 탈춤의 연구사에 대한 논의의 일부는 좀 더 형평이 있어야 했다. 특히 현장답사를 연구의 오류로 거론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추체험은 현장답사를 배제하고는 좀처럼 갖을 수 없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성과가 때로는 불만족스럽더라도 탈춤을 비롯한 민중 문화의 연구는 발로 뛰 연구자의 값진 노고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라리 탈춤이 현재의 생활공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복원을 거쳐 연행되므로 보다 정확한 역사적 상상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면 수긍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또한 답사주의를 표방할 정도로 이를 중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뚜렷한 방법론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면 이 역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현장답사 중요성 배제는 잘못

또한 서술의 상당부분이 많은 연구자들의 해석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대목도 적지않다. 그것은 인용 서목에서도 드러난다. 탈춤에 대한 반대한 논저를 모두 소회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화백이 다르더라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견해를 보여준 연구 성과를 밝혀주어야 했다. 종래의 입장과 상치되는 논의를 제기할 때, 이러한 오류는 저서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김옥동 교수의 서술 방식도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 70년대 이후 탈춤이 민족운동 또는 민중운동 이데올로기의 한 역사적 근거로서 정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연구자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탈춤의 미학을 단순히 특정 민족이나 계급만의 것으로 단정하는 자세는 곤란하다는 김옥동 교수의 지적이, 각 연구자들의 이념까지 비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또다른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민중 콤플렉스"라는 김옥동 교수의 표현이 "과연 탈춤이 민중의 문화일까?"라는 화백으로 설정되었다면 견해가 다른 연구자들도 논의의 장으로 모았을 것 같다.

필자는 탈춤의 연행과 관련하여 그 주제 집단과 사회 구조에 대한 종래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탈춤의 주제 집단의 성격, 즉 중재 엘리트로 규정되는 향리들의 역사적 특성과 기능, 邑治 중심의 제의 발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전한 이들 중재 엘리트의 담론, 나아가 이 집단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한 조선 왕조 특유의 통치체제는, 이 모두가 탈춤 역사와 원리, 그리고 발전을 이해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탈춤은 중재 엘리트로 규정할 수 있는 향리들이 주재한 사례가 두드러지며, 나아가 탈춤이 邑治의 제의를 중심으로 발전한 현상은 조선후기의 탈춤 발전의 현저한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 가설을 인정하는 한, 탈춤의 역사적 성격과 발전에 대한 조동일 교수 등의 가설은 더 이상 의미있는 것이 되기 어

렵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탈춤의 발전을 단순히 민중의식 및 민중문화의 성장으로 규정해온 종래의 논의는 현재의 논리와 방법으로는 입증될 수 없을 것이다.

김옥동 교수의 「탈춤의 미학」은 바로 이러한 필자의 논의를 하나의 전제로 수용하면서 출발한 첫 논저이기도 하다. 어쩌면 조동일 교수 등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김옥동 교수의 몫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자와 같은 역사 연구자의 영역에서 더욱 타당성을 가질런지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김옥동 교수가 필자의 주장을 반론의 가장 주요한 논거로 제시했다면 더 큰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는 탈춤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질적인 내용의 원전이라 할 지라도 주제 집단의 차이에 따라 청중의 이해와 해석은 상이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탈춤 미학의 연구에 있어, 이를 수반하는 제의와 결부하여 주재자와 연행자(물론 이 양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향유자 사이의 다양한 발화수반력과 반응을 결부하여 이해하는 또다른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속학자 탈춤연구, 역사학 성과 수용해야

영문학 전공자가 탈춤 연구에 가세한 사실은 크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저서가 드문 우리 학계의 현실에서 저자는 개별논문들 모은 것이 아닌 저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재해 교수의 서평은 同學을 따뜻하게 격려하거나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오랫동안 준비하여 내놓은 저서는, 그 가치에 대한 타당한 평가에 앞서 매몰찬 비난만을 받았다. 설령 견해가 다르고 때로는 표현에 공감할 수 없더라도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좀더 차분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질적이거나 주변적인 사고의 돌출을 배려하는 공간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 학계는 동질적인 집단끼리만 모여 집단성원 내부에만 통용되는 담론을 재생산하는데 너무도 익숙한 것 같다. 서평이 이러한 학계 문화의 희생물로 전락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마루벌
신사고!
신감각!

토탈 에디터리얼 디자인

저희 마루벌은 단순히 예쁜 인쇄 미디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철저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의뢰된 내용이 정확히 표출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포된 디자인의 인쇄 미디어 다운 인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마루벌의 의지는 고객이 의뢰한 에디터리얼 디자인의 전과정· 기획·표지·편집·윤문·교열·교정·홍보·광고기획·식자·제판·인쇄·코팅·제본에 이르기 까지 저희 마루벌의 노하우와 감각·치밀성과 정확성으로 몇몇 사람이 선호하는 인쇄 미디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쇄 미디어로 완벽하게 꾸며 드립니다.

인쇄 미디어의 모든 것.
신사고 · 신감각의
마루벌 전문인력과 협의 하십시오.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 |
|--------------------------|---------------------|
| 디자인 | 편집 |
| 표지·문분·광고·카드록 등 | 단행본·서보·잡지의 세밀한 편집! |
| 마케팅 전략에 의한 감각적·차별적 디자인! | ·식자·출력 |
| ·윤문·교열·교정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
| 완벽한 문장구성· | 매김토시 완벽 출력서비스! |
| 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3의 창조! | ·제판 |
| ·인쇄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원색 제판! |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고품질 인쇄! | ·기획 |
| ·제작 | 원고 기획·마케팅·편집계획·광고 등 |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제본! | 종합 컨설턴트 |

만족이 있습니다



Tel: 701-2391(대표)
Fax: 701-2395



서울시 용산구 원호로 1가 40-6